

대강절 네 번째 / 성탄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OF ADVENT
CHRISTMAS SUNDAY

주후 2020년 12월 2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 11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7 번 성탄절 (Christmas)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Luke) 1:46-55 조상희 집사

온라인찬양 Online Anthem “Advent Trilogy” 찬양대

영어 설교 English Sermon “Those Who Change The World” Will Purushotham

한어 설교 Korean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 (6) – 기뻐함으로” 김일선 목사
(Gathering Together Again – With Joy)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별연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아지기 보다는 더 높아지려고 했고,

주님의 화평을 가져오기 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야기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미움과 거짓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 하옵소서.

그러하여,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화해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2: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 하였음은” (한글개역 **눅 1:46-47**)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 (NIV **Luke 1:46-4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20 (주일)	12/21 (월)	12/22 (화)	12/23 (수)	12/24 (목)	12/25 (금)	12/26 (토)
	대하24	대하25	대하26	대하27,28	대하29	대하30	대하31
본문	계11	계12	계13	계14	계15	계16	계17
	속7	속8	속9	속10	속11	속12,13:1	속13:2-8
	요10	요11	요12	요13	요14	요15	요16

성/탄/전/야/ 촛/불/예/배 토/요/ 새/벽/기/도/회

성탄전야 촛불예배 (12/24 목 오후7:30)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딤후21:1-14)
토요 새벽기도회 (12/26 토 오전6:30)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시20:1-9)

지난 주일(12/13)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5) – 동행함으로” (눅 24:13-17, 28-35)

동행(同行)은 (한 마디로) 1)길을 같이 가는 것이고, 또한 2)일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동행과 비슷한 의미로는, 1)같은 방향을 지향한다는 뜻의 동향(同向)이 있고, 2)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의 동심(同心)이 있으며, 3)같이 함께 산다는 뜻의 동거(同居)가 있고, 4)같이 함께 일한다는 뜻의 동역(同儕)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요 영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영위해갈 수 있었습니까?

1)첫째, 우리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에 달려 있으며, 2)둘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은 (반드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며, 3)셋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톨스토이도 자신의 책 ‘세 가지 질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주님과 함께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